

제10과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

야고보서 말씀 묵상 그 열 번째 시간 오늘은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가 ‘온전함’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욕심의 문제를 다룬 후에 야고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돌아보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믿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믿음의 양태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1. () 하나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음을 상기시킨 야고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욕심’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성령님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렸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5-6)

같은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하찮은 말로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야고보서 4:5-6(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생각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한 대로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5-6(쉬운성경))

이상의 번역서들과 비교하여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절대로 헛되거나 하찮거나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참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야고보 선생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26)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오스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역대하 6:14)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우시는 성령님,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이 성도들이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2. 하나님께 () 그리고 ()

이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야고보 선생은 구체적인 명령들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를 가까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7)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8)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를 가까이한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자가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그것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1) 하나님은 ()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언제나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시편 136:1)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시편 119:137)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he is faithful and just)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1서 1:9)

성경의 일관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고 의로우시다’고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악이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선하십니다. 온전히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명령은 우리가 ‘거부하거나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그분의 선하시고 의로우심에 대한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2) 하나님을 (_____)

복종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는 ‘그분을 가까이’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야고보가 말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약 1:17)”를 믿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놀라운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12)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15)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명목상의 부자관계로 남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더욱 친밀하고 가까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더욱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3. 마귀를 ()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을 가까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영적 대적인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의 장애물들에는 여지없이 사단이 배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7b)

→ 성령님은 야고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격에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1서 3:8)

→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고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17-18)

→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귀신들린 자를 고친다는 일차적인 말도 되지만,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사단은 우리를 피해 떠나는 줄 믿습니다.

4. ()를 정비하라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단을 대적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구체적 삶의 태도들에 대해 지적합니다.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8b)

첫째,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한다’는 말은 ‘악행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즉 죄악과의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사장들이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손과 발을 물로 씻듯이, 이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를 가까이할 수 없습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피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둘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는 마음’, 앞에서 지적한 ‘세상과 벗 되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겸하려는 세상을 향하거나 재물을 향하거나 하는 마음을 찢어 내라는 것입니다. 앞에 죄인들에게 ‘손을 씻으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들을 지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셋째, 애통하며 올라.

야고보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올라’고 명령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야고보서 4:9)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슬퍼하고 애통하며 올라’고 할까요? 그것은 ‘슬픔의 인생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욕심에 잡힌 삶을 살면서 아무 문제 없는 듯 살아가는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 진정한 회개로 나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마음 가족을 베라’고 권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 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 4:4)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17)

이와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늘 거룩함과 성결함을 위한 영적 민감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10)

→ 주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오히려 높이십니다.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하여 스스로 높아 지려는 자는 낮추시지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 높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상 2:6-7)

이 세상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과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스스로를 낮춤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교회의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 그런 자들을 통해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고린도전서 1:26-28)

□ 묵상과 적용

오늘 배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적용할 것들을 적어 보세요!!

[illegible]